

‘최악 가뭄’ 전남도, 물 절약 등 중장기 용수 공급대책 총력

물 수요관리로 도민 불안 해소
올 들어서도 120mm 강수량 그쳐
대체수원 확보·물 채우기 등 진행

전남도가 당장 시급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와 유사한 가뭄에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중장기 물 공급 계획 등 가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남도는 27일 전라남도 가뭄대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무강우까지 대비한 물 수요관리로 도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나해 전남지역 총 강수량은 846mm로 평년 1390mm대비 약 60%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120mm 강수량에 그치고 있다. 지난 22~25일 평균 27mm(광양 최고 46mm·완도 최저 11mm)의 단비가 내려 주요 상수원 저수율의 일부 상승이 전망되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남지역 생활용수 저수율은



농번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26일 오후 전남 담양군 용면 담양호 상류가 메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양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의 이날 저수율은 32.2%에 불과하다. /뉴스스

광역상수도(광역댐 4곳) 23.0%, 지방상수도(60곳) 41.2%이며, 농업용수 저수율은 4대호(나주·담양·광주·장성호~37.9%)를 포함해 54.7%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년 빈도의 최저 강우에도 연말까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전남지역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고려해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생활·공업용수의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관정·운반급수 등에 144억원을 긴급 편성·투입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양수정 정비, 관정개발·준설 등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영농기 대비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에는 물체

우기 작업도 진행 중이다.

수요 감축을 위해선 여수산단 공장 정비시기를 조정한 공업용수 절감과 생활용수 절감 시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 물공급 안정화를 위해 도서지역 광역상수 해저관로 건설과 영산강 농업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만권 보조수원 확보를 위해 공장 하·폐수 재이용 시설도 추가로 설치해 물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경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선 연말까지 용수공급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무강우까지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송 매체 광고, 재난문자, SNS 홍보, 민·관합동 캠페인 등 물 절약광고와 현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해해 생활·공업용수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중소 10곳에 브랜드 개발 지원

경북도가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의 하나로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해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고자 추진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의성군

산림청 주관 평가 ‘매우 우수’

경북 의성군은 산림청 주관 ‘2022년 산림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국도비 등 총 75억 원을 보조받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대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조림 70ha, 숲가꾸기 565ha, 임도 15.5km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림청은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대해 계획 수립, 실행과정, 성과달성 항목 등 총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의성(경북)=김상복 기자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지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3월 27일(월)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원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영양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 출연한 출연금이 경기 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될 것에 대비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출연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27억 융자지원

경남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군별 융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추천 확정된 1089명이 대상이다.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 원을 합한 총 327억 원을 지원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 전국 최초 근로자 ‘반값 아침한끼’ 선보인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개소
구매비용 50% 지원해 절반 가격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반값 아침한끼’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서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광주시는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식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간편한 아침한끼’에서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수량 이상을 전달까지 주문하면 배달 판매도 진행한다.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용빈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하남산단관리공단,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다. 근로자들에게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끼가 되길 바란다”며 “조식 지원,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하남산업단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이용자 수요와 만족도 등을 살핀 뒤 1일 판매 지원량(현재 100~120개) 확대, 김밥 등 메뉴 다양화, 다른 산업단지로의 판매 지역 확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 지역 관광상품 플랫폼 구축 시동

쇼핑몰·OTA 시스템 개발 보고회

경북 안동시가 지역 관광상품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최근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스마일트립200 연계 쇼핑몰 및 OTA(Online Travel Agency)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스마일트립200사업은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핵심사업이다.

경북 북부 시군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체험형 여행상품과 기념품을 개발, 온라인으로 국

내외 관광객에게 유통하는 플랫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 관광상품 유형은 한옥 체험 등 숙박 프로그램 일변도로 진행했다는 문제가 지역 관광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재단은 스마일트립200 사업을 통해 관광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도화해 매력있는 관광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의 연착륙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상담(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울산시 관내 대기·폐수배출업소 중 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가이드북)를 무료 배부한다.

특히 ‘상담사(컨설턴트)’는 현재 관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4년 만에 개최

국내 최대 벚꽃단지의 하나인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는 31일 그린나래광장 일원에서 하얀꽃구름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4월 2일까지 3일간 벚꽃가요제, 청소년 댄스경연, 하동의 우수농·특산물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맞는다.

축제 첫날 오후 1시 화개면 풍물패 ‘되가람’의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즉석 레크리에이션에 이

어 5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다음 날은 오전 10시 즉석 레크리에이션 및 벚꽃가요제 예선, 관광객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벚꽃가요제 본선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예선과 결선이 차례로 열리고 이어 벚꽃가요제와 청소년 댄스 경연 시상식, 오후 5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